

설치미술가 최인준씨 선친 최승효 가옥 일반 공개

역사 담긴 고택 '예술 옷' 입혀 시민들의 문화·휴식 공간으로



최인준씨가 '최승효 고택' 앞에서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던 지난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광주 남구 양림동 사직공원 기슭의 좁은 골목길을 올라가자 정면 8칸 측면 4칸의 팔작 기와지붕이 화려히 모습을 드러낸다.

대문을 들어서자 한옥을 둘러싸고 있는 울창한 나무숲을 스쳐가는 바람에 맑은 식히며, '다독다독' 가옥 이곳저곳을 맴돌고 있는 설치미술가 최인준(58)씨의 모습이 눈에 띈다.

도심의 분주함이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가 되는 이곳은 광주지 지방문화재 제2호로 지정된 '최승효 고택'이다.

광주 남구영상센터(옛날 KBS)건물 아래에 위치한 이 가옥은 독립운동가 최상현 선생이 1921년 지은 건물이지만, 독립운동으로 가세가 기울면서 폐가가 되다시피 했다.

1969년 최인준씨의 선친이자 광주 MBC를 창립한 최승효 선생이 가옥을 인수해 다시 손길을 불어넣었지만, 1999년 작고 이후 사람의 손길이 끊기고 말았다.

문화재라는 거주장소라는 이름만 걸치고

있던 가옥은 최승효 선생 3남인 최인준씨의 3년여간의 노력을 통해 시민 문화 예술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최씨는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인 백남준 선생에게서 사사하면서 미국에서 커뮤니

13년 만에 고국을 찾은 그는 그때부터 새로운 화두를 붙잡기라도 한 듯 우리 문화재의 부활을 위해 방법을 모색했다. 집안 가득한 잡초를 제거하고, 대청의 목은 때를 벗겨냈다. 기둥 틈새를 메우고, 나무숲에 찾아오

백남준 선생에 사사...13년만에 고국 찾아 목은 때 벗기고 공연장·산책길 등 만들어

케이션 아트를 공부한 설치미술가. "백남준 선생과 1995년 제 1회 광주 비엔날레를 위해 고향에 왔다가 아름다운 우리 전통 유산이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함께 왔던 외국인들에게 광주의 아름다움과 우리 문화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는 새들을 위해 작은 집도 지어 올렸다. "처음에는 '딱 1년만 하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저곳 손볼 곳도 많고, 나중에는 점점 욕심이 생기는 게 끝이 없더라고요" 그의 분주한 손길에 마당 한 칸에는 조그마한 공연장이 생겨났고, 아름드리 나무를 따라 산책길도 만들어졌다. 대숲에 이는 바

람을 뒤로하고 무등산을 올라다볼 수 있는 푸른 잔디밭도 생겨났다.

"가옥 곳곳에 저의 노력·예술 세계는 물론 이곳에 살았던 이들의 숨결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지하 부엌에는 그의 어머니가 가옥 주변에서 탄 과일들로 직접 담갔던 갖가지 과실주와 손때 묻은 식기 도구가 예전 그대로 자리잡고 있다. 독립투사들이 은신했던 다락에는 최승효 선생이 사용했던 돗자리가 손님들을 맞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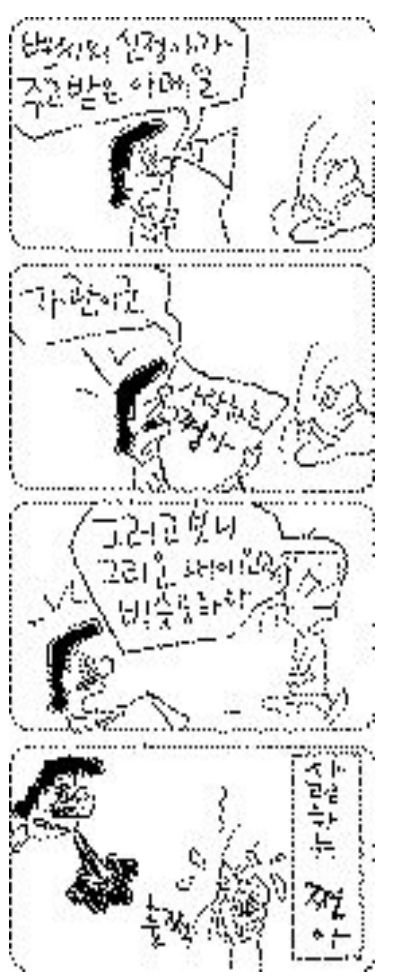
최씨는 자신의 예술 작품을 새롭게 배치하기도 했지만 가옥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살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다. 최씨의 이런 노력으로 9917m<sup>2</sup> (3천 평)가 넘는 가옥 어느 곳에도 인위적인 억지스러움은 보이지 않는다.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집을 찾아온 것 같은 편안함과 우리 문화의 가치를 느끼고 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양림동 역사 문화 마을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사람들이 쉽게 찾아 올 수 있도록 영상센터와 연결되는 문을 만드는 공사도 진행하는 등 이제 저의 기나긴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는 문화와 예술이라는 것은 사람들과 만날 때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달 공사가 끝나는 대로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百世清風(백세청풍·백대를 이어갈 맑은 바람)". 가옥 현관에 걸린 이 네 글자에는 광주에 예술·문화의 바람이 쉽게 불기를 바라는 최씨의 바람이 담겨있었다.

나원침 (7318) 김동두



Advertisement for KCC (Korea Chemical Company) products, including DS Industrial and Jibun Dairy.



전국체전 경기장 '아트벽화' 제88회 전국체전을 10일 앞둔 28일, 주 경기장인 광주월드컵경기장 서문 옹벽에서 조각 타일을 이용한 벽화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위지량기자 jrwi@kwangju.co.kr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 활동 교사 4명 파면 등 중징계

교사들 강력 반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교사 4명에 대해 학교 법인 측이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려 해당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학교 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우석'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모(여·49)씨 등 교사 2명에게 파면을, 윤모(46)·김모(42)씨 등 교사 2명에게 각각 정직 1개월, 감봉 1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파면당한 조씨 등 교사 2명은 "학교 정상화와 이사진 퇴진 등을 요구하며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사실이 징계로 이어진 것"이라며 "법인의 징계처분을 받

아들일 수 없다"며 28일 오전부터

대략 위 관계자는 "성폭행 혐의로 직위해제됐던 교직원들을 복직시킨 반면 법인에 반대하는 교사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징계당한 교사들은 교육부 관련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訴請·공무원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심사를 하는 행정심판)심사를 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권상우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피바람이 불 것'이라고 협박하며 일본 팬 미팅을 강요한 사실과 2001년 진주교도소 도소 수감 중 뇌물점점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전 진주교도소보안과장 이모(57)씨에게 1천200여만원

前 서방파 두목 김태춘 징역 3년 선고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이법원 판사는 28일 인기라틴트 권상우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춘(58)씨에게 협박 및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권상우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피바람이 불 것'이라고 협박하며 일본 팬 미팅을 강요한 사실과 2001년 진주교도소 수감 중 뇌물점점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전 진주교도소보안과장 이모(57)씨에게 1천200여만원

쌀쌀한 아침·저녁... 완연한 가을

주말과 휴일 아침·저녁 쌀쌀한 가운데 하늘은 눈푸른 완연한 가을 날씨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29일 광주·전남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이 끼겠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최저기온이 12~17도로

떨어지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또 "일교차가 심해지겠다"며 "감기 등 환절기 건강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일요일인 30일은 구름이 조금 끼는 맑은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체력장' 준비 중학생 800m 달린 뒤 숨져

지난 27일 오후 3시19분께 광주시 북구 분촌동 3중학교 운동장 화단에서 이 학교에 다니는 김모(14)군이 갑작스럽게 쓰러져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김군은 이날 동부교육청 주관 학생 신체능력평가 '오래달리기'에 대비해 체육교사 이모(36) 교사의 감독 아래 20분 동안 800m를 달린 뒤 화단에서 쉬던 중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형 기자 golee@

서해안 침수피해 주의 9월 29일 (음 8월 19일) 전국날씨

Table showing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in South Korea,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and precipitation chances.

서해안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남해안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5~2.5m

목포 밀물 < 03:24 썰물 < 08:43, 여수 밀물 < 10:35 썰물 < 04:09

▲해돋이 06:25 ▲해질 18:20 ▲달출 19:37 ▲달몰 09:03

Table showing daily weather forecasts for the next five days,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and weather icons.

한달 새 실종 관광객 4명 숨진 채 발견 보성 회천 앞바다서 무슨일이...

일부 시신 타살 흔적...경찰 70대 용의자 영장

최근 한 달 사이 보성 회천 앞바다에서 실종된 관광객 4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되고, 일부 시신에서는 타살 흔적까지 드러나 경찰 수사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8일 오전 3시30분께 보성군 득량면 서당리 남쪽 2.2km 해상에서 안모(여·23·인천시 남동구)씨가 숨져 있는 것을 조업중인 어선 선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안씨가 발견된 곳은 지난 26일 친구인 조모(여·24·경기도 시흥시)씨가 숨진 채 발견된 해상과 1.1km가량 떨어진 곳이다. 경찰은 안씨의 시신을 검안, 타살 여부 등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중이다.

숨진 조씨 등은 지난 25일 함께 보성으로 놀러갔다가 같은 날 밤 '배에 감금된 것 같다'며 여행 중 알려 된 보성 주민 B씨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함께 실종됐으며, 조씨는 다음날 오전 8시 20분께 보성군 회천면 율포항 앞바다에서 목에 상처를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31일 오후 6시부터 1분 간격으로 119 지령실에 4차례 전화를 걸어 아무말도 없이 끊은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이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두 사건에 대한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며,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부검을 의뢰해 놓은 상태.

대선후보 팬 사인회 금품 제공 고발

제17대 대통령 선거 대선 예비 후보 팬 사인회 참석과 관련, 교통비와 식비를 제공한 종친회장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대선 예비후보의 팬 사인회 참석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모 종친회장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예비 후보의 팬 사인회에 종친회원 112명을 참석하게 한 뒤 식비 63만 9천원과 교통비 101만 원을 자신들의 돈으로 우선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교통비와 식비를 제공받은 이들에게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홍=김용기기자 kykim@

'보이스 피싱' 조선희 등 13명 입건

○--속칭 '보이스 피싱(Voice fishing)'을 통해 1억 여원을 가로챈 조선희 등 13명이 경찰에 무더기 입건.

○--영광 경찰은 28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을 사칭, 국민연금을 환급해준다고 속인 뒤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39·중국 국적)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42)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20분께 영광읍 남천리 이모(여·43)씨 집으로 전화를 걸어 국민연금관리공단 과장을 사칭한 뒤 국민연금을 환급해준다고 속여 600여 만원을 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지금까지 10여명으로부터 1억5천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

/영광=조익성기자 ischo@